

2024. 10.

목자의 마음으로 순원을 품는

순모임 프리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2024. 10. 6. 바셀 캠퍼스 본당 오후 2시



시애틀형제교회
COMMUNITY CHURCH OF SEATTLE

선교 중심적 교회(Mission-Driven Church)를 향하여

지난 달 우리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벅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마음으로 품고 기도했던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선교 컨퍼런스를 가지고, 53주기 설립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재헌신, Rededication 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선교 컨퍼런스를 통해서 선교사님들께서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녁 집회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세계 열방에서 오신 선교사님들과 두 손 들어 찬양하는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민박과 차량으로 섬겨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헌신한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선교에 대해서 대화했던 Missional Church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교 컨퍼런스와 집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교사님들 사이에서 전우애(?) 같은 팀웍이 생겼습니다.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 사이에 깊은 친밀감과 영적 유대감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Missional Church를 넘어서 Mission-driven Church로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는 우리 주님의 대사명이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눈 앞에서 생생히 보았습니다. 이제 선교사님들은 다시 세계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구원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선교 컨퍼런스를 마쳤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순모임에서도 더욱 힘써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향하여 함께 걷는 형제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좋은 길, 더 큰 기쁨의 길을 걷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스도의 종, 권준 드림



목자의 마음으로 순원을 품는

순모임 프리뷰

순모임용

| 생명의 삶 나눔식 소그룹 2, 9월 11일 본문, P178 |

마음 열기 Ice Breakers

삶에서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일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말씀 함께 읽기 Examine God's Word

호세아 6:1-11을 함께 읽어보세요. 반복되는 단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들에 동그라미나 밑줄로 표기해 보십시오.

배경 이해하기 Understand Setting

호세아가 사역할 때는 여로보암 왕 2세 시기로, 솔로몬 시대 이후 제2의 국가적인 전성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할 왕과 지배계층은 도리어 서로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가난한 백성들을 고향하고 착취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면서 사랑의 모습이 사라지고,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등이 사회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케 하셨습니다. 호세아가 간음하는 여인 고멜과의 결혼 생활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모습을 나타내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하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깨어진 관계가 다시 친밀하게 회복되기를 바라시며, 호세아서를 기록케 하셨습니다.

말씀 묵상 나눔 Meditate the Text

1-1 < 관찰과 묵상 > 이스라엘 백성을 찢으셨으나 고쳐 주시고, 때리셨으나 싸매 주실 분은 누구인가요?(1절)

1-2 적용과 나눔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 내 삶에 일어났거나, 일어나야 할 구체적인 변화를 함께 나누어 보세요.

2-1 관찰과 묵상 호세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신다고 말했나요?(6절)

2-2 적용과 나눔 일상에서 하나님의 인애(사랑과 긍휼)를 실천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지 나누어 보세요.

말씀다지기 Review the text

하나님께서서는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징계를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징계와 심판을 선포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 지식은 이성적인 의미의 지식이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간을 보내고, 친밀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도 괜찮다'는 오만한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일 예배와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보냄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는 가족들과 주변 이웃들을 돌아보는 사랑의 삶을 실천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Pray through the text

- 1 내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은혜를 주소서.
- 2 나의 가정과 순 공동체가 하나님과 친밀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자의 마음으로 순원을 품는

순모임 프리뷰

순장용

생명의 삶 나눔식 소그룹 2, 10월 8일 본문, P182 |

마음 열기 Ice Breakers

한 아이가 아빠로부터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웁니다. 처음에는 보조 바퀴가 있는 네발 자전거를 타고 어느 정도 지나면, 보조 바퀴를 제거하고 두발 자전거를 탑니다. 아빠는 아이의 발이 땅에 닿도록 안장을 조정하고, 뒤에서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줍니다. 한 번 두 번 시행착오를 거친 아이는 이제 익숙해져서 자전거를 타게 됩니다. 그러다가 넘어지게 된다면, 아버지는 달려가서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며 다시 용기를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여 말씀의 길로 달리도록 우리를 바라보시고, 붙들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잘못된 길이나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넘어지려 할 때에도 우리를 붙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연결어 삶에서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일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말씀 함께 읽기 Examine God's Word

호세아 6:1-11을 여러 번역본으로 읽어보십시오. 반복되는 단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들에 동그라미나 밑줄로 표기해 보십시오.

개정개역	우리말성경	ESV
6:1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2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3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6:1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찢으셨지만 우리를 고쳐 주실 것이다. 그가 때리셨지만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다. 2 아들이 지나면 그가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3일째에 그가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우리가 그 앞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3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기 위해 전심전력하자. 그가 오시는 것은 새벽이 오는 것처럼 분명하다. 그는 마치 비처럼, 마치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6:1 "Come, let us return to the LORD; for he has torn us, that he may heal us; he has struck us down, and he will bind us up. 2 After two days he will revive us; on the third day he will raise us up, that we may live before him. 3 Let us know; let us press on to know the LORD; his going out is sure as the dawn; he will come to us as the showers, as the spring rains that water the earth."

4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
 라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라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5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
 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
 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6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
 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
 는 것을 원하노라
 7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8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
 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9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 같이 제
 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
 니 그들이 사약을 행하였느니라
 10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
 느니라
 11 또한 유다야 내가 내 백성의 사
 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네게도 추수
 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4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위해 무
 었을 해 줄까? 유다야,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 줄까? 너희 인애는
 아침 구름과 같고 금방 사라지는
 새벽이슬과 같다.
 5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을 시켜
 그들을 찢어 찢개고 내 입에서 나
 오는 말로 너희를 쳐부렸다. 너에
 대한 심판이 번개처럼 올 것이다.
 6 내가 바라는 것은 인애이지 제사
 가 아니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번제가 아니다.
 7 그러나 그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그곳에서 그들이 내게 신
 살하지 못하게 행동했다.
 8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성읍이어서 피 발자국으로 덮여 있
 다.
 9 약탈자 무리가 매복해 사람을 기
 다리는 것처럼 제사장들 무리도 그
 령다. 그들은 세겜으로 가는 길에
 서 살인을 하며 수치스러운 죄악을
 저지른다.
 10 이스라엘의 집에서 내가 끔찍한
 일을 보았다. 그곳에서 에브라임이
 음란한 짓을 하고 이스라엘이 더럽
 혀졌다.
 11 내가 포로 된 내 백성을 회복시
 킬 때 유다 네게도 또한 추수할 때
 를 정해 놓았다.”

4 What shall I do with you, O
 Ephraim? What shall I do with
 you, O Judah? Your love is like a
 morning cloud, like the dew that
 goes early away.
 5 Therefore I have hewn them by
 the words of my mouth, and my
 judgment goes forth as the light.
 6 For I desire steadfast love and
 not sacrifice, the knowledge of
 God rather than burnt offerings.
 7 But like Adam they transgressed
 the covenant; there they dealt
 faithlessly with me.
 8 Gilead is a city of evildoers,
 tracked with blood.
 9 As robbers lie in wait for a man,
 so the priests band together; they
 murder on the way to Shechem;
 they commit villainy.
 10 In the house of Israel I have
 seen a horrible thing; Ephraim's
 whoredom is there; Israel is
 defiled.
 11 For you also, O Judah, a harvest
 is appointed, when I restore the
 fortunes of my people.

배경 이해하기 Understand Setting

호세아가 사역할 때는 여로보암 왕 2세 시기로, 솔로몬 시대 이후 제2의 국가적인 전성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할 왕과 지배계층은 도리어 서로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가난한 백성들을 겁탈하고 착취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면서 사랑의 모습이 사라지고,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등이 사회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케 하셨습니다. 호세아가 간음하는 여인 고펜과의 결혼 생활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모습을 나타내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하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깨어진 관계가 다시 친밀하게 회복되기를 바라시며, 호세아서를 기록케 하셨습니다.

1-1 < 관찰과 묵상 > 이스라엘 백성을 찢으셨으나 고쳐 주시고, 때리셨으나 싸매 주실 분은 누구인가요?(1절)

그들을 찢으셨으나 낮게 하시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해설 호세아는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권면합니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회개를 요청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그가 찢으셨지만'이라는 표현은 호세아 5장 14절에서 사자가 찢는 것 같은 엄중한 심판으로부터 돌이켜 주시겠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다가올 앗수르 제국의 심판을 암시합니다. 2절에 기록된 '이들이 지나면, '삼일 췌에 회복시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회개하기만 하면, 가까운 시기에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임할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1-2 < 적용과 나눔 >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 내 삶에 일어났거나, 일어나야 할 구체적인 변화를 함께 나누어 보세요.

순장 순모님이 먼저 부족했던 과거의 모습을 순원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실수하고 부족했던 모습을 간단하게 요약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셨던 내용을 더 깊이 나누어 주십시오. 그 후의 구체적인 삶의 변화에 대해서도 나누어 주십시오.

해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알자라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앎보다는 관계적인 앎, 즉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관계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있을 모습을 자연 현상으로 설명했습니다. 자연 현상이 정기적으로 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벽 빛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오게 될 것을 말했습니다. 호세아 5장 7절에서 언급된 초승달(새 달)은 깊은 죄악의 어두움을 시사하지만, 6장 3절에서 언급된 새벽 빛은 회복과 밝은 미래가 찾아올을 의미합니다. 땅을 적시는 늦은 비는 오랜 가뭄의 영향으로부터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회개하며 겸손히 나아가기만 하면, 용서해주시고 회복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십니다(출 34:5).

2-1 < 관찰과 묵상 > 호세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신다고 말했나요?(6절)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했습니다.

해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임을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용서와 사랑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실 때, 율법만 주장하며 위선적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들에게 호세아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마 9:13, 12:7).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그 사랑에 영향을 받아서 이웃에게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갈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2-2 < 적용과 나눔 > 일상에서 하나님의 인애(사랑과 긍휼)를 실천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지 나누어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대화해 보십시오. 가장 먼저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가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정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을 정할 때는 규칙을 정하기 보다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더 친밀하며, 더 깊이 보내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주십시오.

해설 호세아는 7-9절을 기록하면서 세 개의 지명을 언급했습니다. 7절에 나오는 아담은 일차적으로 한 지역의 이름을 가리킵니다. 당시 '아담'이라는 지역으로부터 8절에 나오는 '길르앗' 그리고 9절에 나오는 '세겜' 이 세 지역이 도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제사장들이 악을 행함으로 피를 흘렸고, 강도 떼와 같이 집단적으로 악을 행했다는 기록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9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행했던 악한 일들을 언급하면서, 사람들을 향해서도 인애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다지기 Review the text

하나님께서 말씀에 떠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징계를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징계와 심판을 선포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의 성품과 긍휼을 가지고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 지식은 이성적인 의미의 지식이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간을 보내고, 친밀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도 괜찮다'는 오만한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일 예배와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보냄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는 가족들과 주변 이웃들을 돌아보는 사랑의 삶을 실천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Pray through the text

- 1 내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은혜를 주소서.
- 2 나의 가정과 순 공동체가 하나님과 친밀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1절a 돌아가자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회개를 요청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그가 찢으셨지만’이라는 표현은 호세아 5장 14절에서 사자가 찢는 것 같은 엄중한 심판으로부터 돌이켜 주시겠다는 표현입니다. “The first reversal is that God will heal what he has torn to pieces, an allusion to the lion metaphor of 5:14. The second reversal is that God will bandage the injuries of Israel, a reversal of 5:12, in which Yahweh is like gangrene in their wounds.” _ Duane A. Garrett, Hosea in NAC Commentary, 137.

2절 이틀... 셋째 날에 이 표현은 가까운 시기에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임할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표현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호세아를 언급하지 않으므로, 직접 연결하여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백성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킬 것에 대한 수사적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Wolff attempts to eliminate the idea of resurrection here, which he casts in a pagan light, and asserts that this text only describes recovery from illness.” _ Duane A. Garrett, Hosea in NAC Commentary, 137.

3절 새벽 빛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알자라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앎보다는 관계적인 앎, 즉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알게 될 때, 자연 현상이 정기적으로 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실 것을 새벽 빛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오게 될 것을 말했습니다. 호세아 5장 7절에서 언급된 초승달(새 달)은 깊은 죄악의 어두움을 시사하지만, 6장 3절에서 언급된 새벽 빛은 회복과 밝은 미래가 찾아옴을 의미합니다. 땅을 적시는 늦은 비는 오랜 가뭄의 영향으로부터 회복을 의미합니다. 호세아서 5장에서 언급되었던 사자, 질병, 어두움, 가뭄의 고통들이 사라지게 될 것을 언급했습니다. “This language is not accidental. Rather, it is a reversal of the punishment in the second oracle, the devouring of the land by the new moon (5:7). As described there, the operating metaphor is the darkness that consumes the land during the new moon; dawn is an obvious reversal of the image.” _ Duane A. Garrett, Hosea in NAC Commentary, 139.

4절 에브라임아... 유다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대명사로 호세아는 에브라임이라는 표현을, 남 유다에 대한 표현으로 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침 구름과 새벽이슬이라는 표현은 지속되지 않고 금방 사라져 버리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Clouds and dew describe that which is fleeting. Unsteadiness in love, that is, the inability to love consistently, not only shows itself in the cult prostitution but increases because of the immorality associated with the cults. An immoral soul loses the capacity for intimacy, loyalty, and love.” _ Duane A. Garrett, Hosea in NAC Commentary, 139.

6절 인애, 하나님을 아는 것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임을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실 때, 율법만 주장하며 위선적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들에게 호세아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마 9:13, 12:7). “This is one of the great texts of the prophets—Jesus used it to expose the hypocrisy of his opponents (Matt 9:13; 12:7). Here, again, the two great desiderata of Hosea, love and the knowledge of God, reappear. ... To the contrary, he desires that his reader acquire the loving and compassionate heart that comes from a

transformational life with God. In Hosea's context the shrines and rituals of Israel had become impediments to true spirituality, and Hosea called upon the people to denounce them.”_Duane A. Garrett, Hosea in NAC Commentary, 140.

7-9절 아담, 길르앗, 세겜 호세아는 7-9절을 기록하면서 세 개의 지명을 언급했습니다. 7절에 나오는 아담은 일차적으로 한 지역의 이름을 가리킵니다. 당시 '아담'이라는 지역으로부터 8절에 나오는 '길르앗' 그리고 9절에 나오는 '세겜' 이 세 지역이 도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학적으로 저자가 처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사실을 포함시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세 지역은 여호수아가 맺은 언약과 모두 연관이 됩니다. 아담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 언약을 맺었던 길갈 근처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길르앗은 여호수아 20장에 기록된 도피성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겜 역시 여호수아 24장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언약을 준수해야 할 제사장들이 악을 행함으로 피를 흘렸고, 강도 떼와 같이 집단적으로 악을 행했다는 기록을 우리는 역사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9절). 하나님께서는 지금 7절에서 9절까지 이스라엘이 행했던 악한 일들을 언급하면서, 사람들을 향해서도 인애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Hosea has therefore once again used a threefold pattern involving places in Israel, but this time with a peculiar twist. Each place recalls the worst characteristics of one of the patriarchs. At Adam they broke faith with God as did Adam; at Gilead the people, unlike Jacob, are entirely without grace; and at Shechem the sons of Levi renew the history of treacherous slaughter.”_Duane A. Garrett, Hosea in NAC Commentary, 143.



목자의 마음으로 순원을 품는

순모임 프리뷰

순모임용

생명의 삶 나눔식 소그룹 4, 10월 21일 본문, P186

마음 열기 Ice Breakers

한 지역에 두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학기를 시작하면서 A 초등학교는 규율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B 초등학교는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관계 중심적으로 학교 생활을 지도했습니다. A학교는 처음에는 잡음이 없는 것처럼 보였으나, 시간이 갈수록 학생들 사이에, 학생과 교사 사이에 문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B학교는 처음에는 잡음이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학생과 교사, 학생들 사이의 관계가 좋아지고 서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엄격한 규칙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과 배려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연결어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나는 율법적인 행동이나 사랑의 관계 중 어디에 비중을 두고 있는지 대화해 보십시오.

말씀 함께 읽기 Examine God's Word

갈라디아서 2:11-21을 여러 번역본으로 읽어보십시오. 반복되는 단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들에 동그라미나 밑줄로 표기해 보십시오.

배경 이해하기 Understand Setting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라는 지역은 현재 튀르키예 지역이었으며,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이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유의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뿐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하고,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참된 믿음이 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강조했던 유대인들의 가르침에 갈라디아 교회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이루어진 구원, 자유의 복음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전한 자유의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십시오.

말씀 묵상 나눔 Meditate the Text

1-1 < 관찰과 묵상 > 야고보에게 어떤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던 베드로(게바)와 바나바 등은 어떻게 했나요?(11-13절)

1-2 < 적용과 나눔 > 내게 두려움을 주어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나누어 보세요.

2-1 < 관찰과 묵상 > 할례와 율법 준수를 구원 조건으로 내세운 이들 때문에 복음에 대해 혼란에 빠진 성도들에게 바울은 무엇을 가르쳤나요?(16절)

2-2 < 적용과 나눔 > 나는 언제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았나요?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삶의 변화나 성숙을 경험한 일을 나누어 보세요.

말씀다지기 Review the text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갈라디아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할례와 율법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할례와 율법의 실천이 의로움과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자유의 복음이요, 구원의 선물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나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으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자는, 모든 율법의 짐을 내려놓고, 자유함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며, 이제는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향하여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Pray through the text

- 1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십자가 사역과 조건없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주소서.
- 2 이제는 내가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소원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유의 삶을 살게 하소서.



목자의 마음으로 순원을 품는

순모임 프리뷰

순장용

| 생명의 삶 나눔식 소그룹 4, 10월 21일 본문, P186 |

마음 열기 Ice Breakers

한 지역에 두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학기를 시작하면서 A 초등학교는 규율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B 초등학교는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관계 중심적으로 학교 생활을 지도했습니다. A학교는 처음에는 잡음이 없는 것처럼 보였으나, 시간이 갈수록 학생들 사이에, 학생과 교사 사이에 문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B학교는 처음에는 잡음이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학생과 교사, 학생들 사이의 관계가 좋아지고 서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규칙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과 배려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연결어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나는 율법적인 행동이나 사랑의 관계 중 어디에 비중을 두고 있는지 대화해 보십시오.

말씀 함께 읽기 Examine God's Word

갈라디아서 2:11-21을 여러 번역본으로 읽어보십시오. 반복되는 단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들에 동그라미나 밑줄로 표기해 보십시오.

개정개역	우리말성경	ESV
2:11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12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13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14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2:11 그러나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에게 책망할 일이 있어서 얼굴을 마주대하고 그를 책망했습니다. 12 게바는 야고보가 보낸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자 그는 할례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해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13 그러자 다른 유대 사람들도 게바와 함께 위선을 행했고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휩쓸렸습니다. 14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2:11 But when Cephas came to Antioch, I opposed him to his face, because he stood condemned. 12 For before certain men came from James, he was eating with the Gentiles; but when they came he drew back and separated himself, fearing the circumcision party. 13 And the rest of the Jews acted hypocritically along with him, so that even Barnabas was led astray by their hypocrisy. 14 But when I saw that their conduct was not in step with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15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16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17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나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8 만일 내가 할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19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1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으로서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 사람에게 유대 사람처럼 살라고 강요하느냐?”

15 우리는 본래 유대 사람이요, 이방 죄인들이 아닙니다.

16 그러나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알기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17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하다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18 만일 내가 허물어 버린 것을 다시 세우려 한다면 나 스스로 율법을 어기는 사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19 나는 율법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 대해 살고자 합니다.

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21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만일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게 죽으신 것입니다.

the truth of the gospel, I said to Cephas before them all, "If you, though a Jew, live like a Gentile and not like a Jew, how can you force the Gentiles to live like Jews?"

15 We ourselves are Jews by birth and not Gentile sinners;

16 yet we know that a person is not justified by works of the law but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so we also have believed in Christ Jesus, in order to be justified by faith in Christ and not by works of the law, because by works of the law no one will be justified.

17 But if, in our endeavor to be justified in Christ, we too were found to be sinners, is Christ then a servant of sin? Certainly not!

18 For if I rebuild what I tore down, I prove myself to be a transgressor.

19 For through the law I died to the law, so that I might live to God.

20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It is no longer I who live, but Christ who lives in me. And the life I now live in the flesh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21 I do not nullify the grace of God, for if justification were through the law, then Christ died for no purpose.

배경 이해하기 Understand Setting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라는 지역은 현재 튀르키예 지역이었으며,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이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유의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하고,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참된 믿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강조했던 유대인들의 가르침에 갈라디아 교회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이루어진 구원, 자유의 복음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전한 자유의 복음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말씀 묵상 나눔 Meditate the Text

1-1 < 관찰과 묵상 > 야고보에게 어떤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던 베드로(게바)와 바나바 등은 어떻게 했나요?(11-13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도착하자 게바와 바나바와 남은 유대인들은 그들이 두려워서 이방인과 식사하던 것을 멈추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해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이 그룹은 야고보와 함께 동역하던 리더들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와 함께 영향력있게 사역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학자들은 베드로가 율법에 기록된 음식법을 준수하면서 식사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다만, 이방인들과 함께 동석했던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할례 받는 것과 율법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들의 성향을 고려한 나머지 실수하게 됩니다.

13절에 외식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의 그리스 단어는 분리하다(play a part)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위선(hypocrisy)라는 단어로 번역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에서 온 사람들은 이방인과 동석하여 식사하는 것을 경계했고,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스스로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잘못으로 의식한 나머지 물러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베드로가 그동안 이방인들에게 대했던 것과는 다른 행동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고넬로 가정에 세례를 주었고,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언급했던 베드로는 복음의 내용과는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분리되었다는 의미에서 '외식'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1-2 < 적용과 나눔 > 내게 두려움을 주어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나누어 보세요.

해설 베드로나 바나바와 같은 성숙했던 지도자들도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동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두려움의 상황에서, 두 영적 리더도 실수 했습니다. 때로, 우리도 갑작스러운 두려움과 사탄의 유혹이나 위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갑작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행동을 지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다면,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자유의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2-1 < 관찰과 묵상 > 할례와 율법 준수를 구원 조건으로 내세운 이들 때문에 복음에 대해 혼란에 빠진 성도들에게 바울은 무엇을 가르쳤나요?(16절)

바울은 사람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해설 “복음의 진리”라는 표현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가장 핵심 개념들 중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안디옥,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이것을 구원의 조건으로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 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즉, 사람은 그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핵심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칭의’에 대한 이 표현을 갈라디아서에서 여섯 번 그리고 로마서에서 두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주장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모두 죄인이며,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종교개혁주의자들이 이 구절에 근거하여 Sola Fide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칭의 교리를 언급하였습니다.

2-2 < 적용과 나눔 > 나는 언제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았나요?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삶의 변화나 성숙을 경험한 일을 나누어 보세요.

해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며, 우리는 영적으로 타락하여 실패한 자들임을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 성경의 명령을 지키려고 해보지만, 노력하면 할수록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사흘만에 죽은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더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내가 실천했던 사랑을 나누어 보십시오.

말씀다지기 Review the text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갈라디아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할례와 율법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할례와 율법의 실천이 의로움과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자유의 복음이고, 구원의 선물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나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으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자는, 모든 율법의 짐을 내려놓고, 자유함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며, 이제는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향하여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Pray through the text

- 1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십자가 사역과 조건 없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주소서.
- 2 이제는 내가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소원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유의 삶을 살게 하소서.

순장님을 위한 말씀 구절 연구 Word Studies

11절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11절에서 비난하다, 책망하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원료분사 형태로 사용된 이 동사는 베드로가 한 행동으로 인해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법적으로 죄를 지었다거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적인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 표현하는 다른 동사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동역자를 적대시하기보다는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한 건전한 비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2절a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 본문에서는 이 그룹이 정확히 어떤 사람들인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리더였을 것이며, 야고보와 동역하던 리더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방문했을 것으로 봅니다. "In either case, the text indicates some kind of relationship between these people who arrived in Antioch and James, one of the "pillars" of the Jerusalem church (v. 9)." _Douglas Moo – Galatians in Baker Commentary, 147.

12절b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고 율법에 기록된 음식법을 알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이 일어난 상황 가운데, 학자들은 베드로가 율법의 음식법을 준수하며 식사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자리에 이방인들과 함께 동석했던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Dunn has argued that Peter would probably have continued to keep Jewish food laws, and that believers in Antioch were accommodating Jewish dietary restrictions via various well-known means to provide for Jewish-Gentile interaction in the Diaspora." _Douglas Moo – Galatians in Baker Commentary, 146.

12절c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바울은 야고보와 함께 사역했던 지도자들이 안디옥에 도착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이 그룹을 할례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할례자라는 의미는 예루살렘에서 할례를 받았고, 할례를 받는 것은 중요한 의무로 여겼고, 어떤 이들은 구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주장하던 자들을 할례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 phrase in itself seems to mean simply "belonging to the group of people who are circumcised" (see Turner 1963: 260 on the use of εἰς in Paul to mean "belonging to")." Douglas Moo, Galatians in Baker Commentary, 147.

13절 외식 이 단어의 그리스 단어는 분리하다(play a part)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위선(hypocrisy)라는 단어로 번역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에서 온 사람들은 이방인과 동석하여 식사하는 것을 경계했고,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방문하자, 스스로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잘못으로 의식한 나머지 물러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베드로가 그동안 이방인들에게 대했던 것과는 다른 행동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가정에 세례를 주었고,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언급했던 베드로는 복음의 내용과는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분리되었다는

의미에서 '외식'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It can mean simply "play a part," as when Josephus refers to some Jews, during the rebellion against Rome, who pretended to surrender along with one of their leaders (J.W. 5.321). But in this case, the part that Peter is playing is one that he knows, at some level, to be in contradiction to his own convictions (w. 14, 15-17)—and "hypocrisy" is therefore an appropriate translation in English. ... In verse 13, Paul accused Peter, Barnabas, and the other Jewish Christians of failing to live out their own convictions ("hypocrisy"); now he accuses them, more seriously, of failing to act in accordance with the gospel. Paul couches this accusation in a metaphor...." _Douglas Moo, Galatians in Baker Commentary, 147-49.

14절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복음의 진리"라는 표현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가장 핵심 개념들 중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안디옥,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의롭게 되는 조건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의로움을 우리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사람은 그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의롭다함을 복음의 핵심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The truth of the gospel" is a key concept in this chapter and indeed, as we have suggested, in this entire first major section in the letter. As its other explicit occurrence in verse 5 reveals, it has particular reference to the issue at stake in Jerusalem (2:1-10), Antioch (2:11-14), and in the Galatian crisis." _Douglas Moo, Galatians in Baker Commentary, 150.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칭의'에 대한 이 표현을 갈라디아서에서 여섯 번 그리고 로마서에서 두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주장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모두 죄인이며,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방인들만 유대 공동체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믿음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주의자들이 이 구절에 근거하여 Sola Fide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칭의 교리를 언급하였습니다. This phrase occurs six times in Galatians (2:16 [3x]; 3:2, 5, 10) and twice in Romans (3:20, 28), always with reference to the attaining of justification or a similar concept. ... He is not arguing that Gentiles should be included, with Jews, in the people of God; he is arguing, rather, that Jews should be included, with Gentiles, in the mass of ordinary humanity. Jews are "sinners" just like the Gentiles, with the radical implication that follows: their obedience to the covenant stipulations cannot put them right with God; only a total reliance on Christ, by faith, can do so. ... The traditional Reformation emphasis on justification sola fide, "by faith alone," is a legitimate theological derivation from the antitheses of Gal. 2:16." _Douglas Moo, Galatians in Baker Commentary, 155-60.

19절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바울은 이 문장에서 현재 상태를 강조하여 동사를 표현했습니다. 이 현재형의 동사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상태가 지속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동사는 신자가 예수님을 믿을 때, 결정적이고 완전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The perfect form of $\sigma\upsilon\nu\epsilon\sigma\tau\alpha\rho\rho\omega\mu\alpha\iota$ (synstaurōmai) emphasizes the continuing state of the subject of the verb: "I am in the state of being crucified with Christ. .. Paul's use of the verb is a reflection of one of his core theological convictions: that the spiritual state of believers is the product of their real identification with Christ in the redemptive events of his crucifixion, burial, and resurrection. ... The imagery is intended to highlight a decisive and total transfer from one state to another." _Douglas Moo, Galatians in Baker Commentary, 171.

• 10월 주요 사역일정과 기도제목 •

주요 사역 일정

- Mission On 단기선교팀(어메이징 아웃리치와 캄보디아 아웃리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 내년 1월에 진행되는 SWM 아웃리치와 튀르키예 아버지학교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봉사자들을 보내주소서.
- 대심방을 통해서 각 가정이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소서.
- 오픈테이블을 통해서 50여 명의 자원자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공동체에 잘 정착하는 은혜를 주소서.
- HJI 기술편지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육 간에 강건케 하소서.
- 1기 관계기술훈련을 통해서 자원자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성숙한 관계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 35기 전도폭발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많은 훈련생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준비되게 하소서.
- 47기 일대일 양육자반에 참여하는 양육자님들이 말씀과 기도로 잘 훈련 받아, 제자를 양육하는 제자로 세워지게 하소서.
- 10월 양육강좌(자유의 복음을 찾아서)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주소서.
- EW 공동체에 다섯 개의 장년 순과 네 개의 영어 청년 순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봉사하는 섬김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도록 은혜를 주소서.

다음 세대 일정

- Sonlight에서 10월 31일에 준비하는 Family Fall Festival에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넘어 주변의 가족들과 친밀한 관계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모든 안전을 지켜주소서.
- Coram Deo 학생들이 새로운 학년에서 학교생활을 시작할 때,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서로 친밀해지는 코람데오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시고, 모든 행사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소서.
- NEXT 학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학업에 임하게 하시고, Senior 학생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진학 과정에 은혜를 주소서.
- NEWave에 영적인 리더들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새 학기를 맞이하여 찾아오는 학생들이 잘 정착하게 하소서.
- EW College 모임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대학부에 리더십이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2024. 10.

목자의 마음으로 순원을 품는

순모임 프리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2024. 10. 6. 바셀 캠퍼스 분당 오후 2시



시애틀형제교회
COMMUNITY CHURCH OF SEATTLE

역은이 | 권 준

퍼낸이 | 공동체 목회자팀

이메일 | hyungjaecommunity@hyungjae.org

주 소 | 3727 240th St SE, Bothell, WA 98021

연락처 | 425-488-1004